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실행력 있는 농촌계획' 지원 강화

[이창우]

21개 시·군 대상 심의 역량 제고 통합 설명회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4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시·군별 농촌 공간 계획 수립 지원 을 위해 '농촌 공간 기초정책심의회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농촌 공간 계획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심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4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시·군별 농촌 공간 계획 수립 지원 을 위해 '농촌 공간 기초정책심의회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 공간 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심의·검토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담양·곡성·화순·해남·진도 등 기초정책심의회를 앞둔 5개 시·군 공무원과 심의위원, 광역 지원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농촌 공간 계획 수립 절차와 심의회의 기능·역할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행 가능성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촌 공간 계획은 수립보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기초정책심의회가 전문적인 검토와 협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